

영화 '미나리'를 보고 구원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

- 한국 기독교보 제3276호
- 솔탄비전센터장 김지혜 목사



영화 '기생충' 대
사 중에 이런 게 있
다. "돈이 다리미라
고, 돈이 주름살을
짜와 퍼줘." 돈이
뭘 길래, 사람을 이
리 들었다 놔다 하
는지, 결국 돈이 그
어놓은 선을 넘었던
가족은 참혹한 결
말을 맞는다. 제2
의 '기생충'이라 불
리는 '미나리' 역시 돈 때문에 울던 한 가족의 이
야기다. 독립영화 문법에 익숙지 않은 분이 '기생
충' 같은 스타일을 기대하고 '미나리'를 보러 영화
관을 찾았다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그 점에서
영화 '미나리'는 향이 강해 호불호가 갈리는 진짜
미나리 같은 영화이다. 생명력이 강해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잘 자랄 뿐더러 오염된 물을 정화시
키고 건강에도 좋은 미나리마냥 요즘같이 모두가
힘든 때에 깨끗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격려와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는 아
름다운 영화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했던 말 기억해? 미국에 가면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서로를 구해주시는커녕 하도
많이 싸워서 애가 이렇게 태어난 건가." 아메리칸
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
새 10년, 하지만 강산이 바뀔 만한 시간이 지나
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한국에서 애정 넘치는
눈빛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해"를 부르던 부부가
서운함을 토로하는 소리를 내뿜는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는 서로를 구해주지 못하지만 돈은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리한 가난을 탈출하고 자녀에
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미국으로 이
주한 이주민 7~80년대 매년 2~3만 명이였다.
모니카(한예리)와 제이콥(스티븐 연) 부부도 그들
중 하나였다. 희망도 잠시, 연고도 없는 곳에서
네 가족이 아등바등 살다보니 지치기도 많이 지
쳤다. 서로 사랑함에도 쪼들리는 형편에 저마다
의 부담과 책임으로 위태롭던 이 가족은, 때로
이질적인 세대와 문화의 충돌로 격화되기도 하지
만 마침내 하나가 되어간다. 그곳이 어디든 무엇
을 하든 서로를 붙잡고 지탱하며 뿌리를 내린다.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
국어영화를 받으면서 미국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었다. 그런데 온전히 미국적
이라는 것, 한국적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더욱
이 태생적으로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말이다.
20세기 들어 더욱 급격히 진행된 세계화는 로
컬과 글로벌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정이삭 감독
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미나리'는 지극히 한국적
이면서 미국적인 혼종의 지점을 일상의 언어로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담아내고 있다. '진짜 할
머니 같지 않은' 한국 할머니(윤여정)가 미국으로
이주한 딸 모니카의 가족을 찾아오며 벌어지는
일들은 80년대 흔히 생각되는 한인 이민자 가
족의 전형적인 것들을 변주하면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단조로움을 깨뜨린다. 종종 등장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어린 표현이나 고된 노
동 장면은 이민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고충을 짐

작게 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부와 성공의 전
형적인 이미지는 아칸소에 심긴 한국의 풀, 미나
리적인 삶의 끈기로 향한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
해볼만 하다. 캘리포니아를 떠나 도착한 미국 남
부 아칸소는 보수적 신앙색이 강한 지역이다. 기
독교 없이 외로운 타향살이에 한인들은 대개
교회로 찾게 마련이지만 갖가지 문제를 겪으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정통 미
국교회와 교차되는 은사주의적 신앙인 폴(윌 패
튼)의 모습은 분명 규정하기 어려우나 백인 교인
들만의 식탁과 가장 먼저 제이콥·모니카 가족을
환대하고 마침내 친구가 되어 둘러앉아 함께 음
식을 먹었던 폴과의 식탁은 분명 차이가 있다.

우리를 진흙탕 같은 절망에서 구해줄 것이라
여기 쉬운 것들이 많지만, 그간 일군 모든 것
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희망은 가장
평범하고 미천한 것, 그래서 종종 무심하기 쉬운
것에서 싹이 튼다. 오래 전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이다. "이새의 즐거이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사 11:1,
새번역)

영화 '미나리'는 척박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겨
내고 풍성해질 가족의 미래를, 답백하면서 때로
는 소박하게 느껴질 만큼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
로 풀어내는 따뜻한 가족영화입니다. 극 중 '앤'
역으로 등장하는 배우 '노엘 케이트 조'는 진광
교회 유치부 출신으로 이성주 담임목사님의 손
녀이기도 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진광교회

예/배/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2부	주 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3부	주 일 오후 2:00	비전홀
주일저녁예배	주 일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30	본당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9:30	본당
유치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관 2층
유년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비전센터 3층
소년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청소년1부예배(중등)	주 일 오전 11:00	비전센터 지하
청소년2부예배(고등)	주 일 오전 11:00	비전센터 4층



종량구 사가정로 41길 3 <http://jinkwang.or.kr>

무료구독 문의 및 광고 접수 02-494-9944 / 438-9944

중랑 행복하 세상

HAPPY WORLD

행복한세상을 만들어가는
고품격 지역매거진

2021년 4월 1일 / 제54호
중랑행복한세상
02-494-9944

4월호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성주 (진광교회 담임목사)



3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5면

당신, 내가 뭘 말 하는지 알아?



13면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정말 잘 자랄까?

Cover Story

'한국의 마돈나'

가수 **엄정화**의 신앙이야기



| 위임목사 칼럼 |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성주
(진광교회 위임목사)

어느 해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 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잃은 소년과 그 아들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바닷가에 조각배를 타고 놀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돌이 타고 있던 배에 금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매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 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습니다.

"뉘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거잖아." "누가 믿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들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대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은 아들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포기한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천국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아들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손을 놓아 버린 것입니다. 2천년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증거된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전히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기절설, 도둑설, 가현설 등으로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장 강력하면서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영생하시기 위해 부활하지 않았습디다.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잘 맺히면 다음 열매들이 계속하여 맺게 됩니다.

첫 열매는 그 나무로부터 앞으로 맺게 될 열매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 또한 장차 곧 주님이 임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오늘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얻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2천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예수라는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어떻게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기독교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열 두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을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리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획기적인 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갈 수 있던 그가 왜 그토록 험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야에 가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산중에 들어가 암혈 즉 동굴을 파고 살았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과 같이 그들은 수 백년 동안 로마 제국의 영화에서 떠나 지하 동굴에서 일생 햇빛 한 점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사도들과 전도자들 주의 종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사기꾼 후에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완성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영생 부활의 장소요 지옥은 영원 형벌의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을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남의 것 속여 빼앗기도 하고, 적당히 바람도 피우고 살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영생 부활을 믿기에 내 몸을 복종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러움에 방임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대학생 선교에 바친 "보수 맥도르"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극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는 승객 전원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의 증언을 얻을 수 없고 유일하게 사고 순간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고 블랙박스가 사고의 원인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어떤 충격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심해에 빠져도 발신음을 낸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남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는 쉽사리 이 세상에서 흔적을 감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마치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그 영혼에 지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 진광교회 이모저모 |

나의 삶을 이끄신 나의 참 부모

간증



조경수
(진광교회 집사)

어버이날을 맞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임목사님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선물하면서 저분이 정말 나의 친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진 저는 평생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 부모처럼 보이는 사람, 제가 우리 담임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보게 되듯 지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아버지상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에게 맞는 아버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강가에 버려야 했죠. 총령총령 물결 따라 아들을 품고 있는 상자도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요게벳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들을 보며 흐느껴 울고 있는 요게벳을 상상하며 '어쩌면 나의 부모도 저런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부모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건, 알 수 없는 생일을 기다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생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또래들이 주말이고 명절이면 집으로 갔던 때, 너무 부럽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땐 눈물도 안 났는데 지금 그때를 떠올리니까 울컥 올라오네요. 그리고 시설 최초로 대학교에 입학할 때, 처음 연애했을 때,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가가던 날은 부모가 곁에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 우리 부부를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초보 엄마, 아빠라서 서툰 육아기를 보냈을 때, 아이가 백일이 지나고 첫돌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통해 첫 사회에 나갈 때도,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해 통합 반에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며 저도 저렇게 컸다면 하는 생각을, 부모가 버리지 않고 같이 했다면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부모 없이 살아온 저는 부모가 되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은데, 제 부모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리면 '그래 분명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함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끄는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따뜻한 품에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좋은 환경, 많은 경험보다 부모와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도 없어져 자유의 몸이 된다는 말에 아파도 외로워도 굶주려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보라며 아무도 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삶을 포기했던 순간에 찾아오셔서 손잡아주시며 외로운 마음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에게, 결혼한다는 저에게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저의 자립 생활은 성공적이었고 우리 부부의 사랑도 넘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딸 하임을 열매로 주셔서 신앙의 대를 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슬프고 괴로운 날이 많아도 아프고 억울한 일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나눠주고 감사하며 저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세상은 우리를 불쌍하고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달랠습니다.

저의 육신의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외로울 때도 굶주릴 때도 행복할 때도 저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워도 싫어도 그들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방식이 한창이던 시절, 그 작은 모니터 안에 흑시라도 우리 가족이 나를 찾진 않을까 하며 마음 졸이며 봤던 생각이 납니다. 내년 어버이날엔 꼭 친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와서 왜 찾냐고 하지만 저는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된 장소는 '부산시 서구 압남동 7번지 구호병원 앞 노상'이라고 합니다. 발견 시간은 '1983년 10월 11일 10시경'이고 '안성용'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을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족을 찾습니다
010-7480-1195

헤어진날짜 : 1983년 10월 11일 10시경
(구)고호병원, (현)알로이시오 기념병원 앞 노상

사진 속 '안성용'이란 아이를 기억하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부탁드립니다.

전교인 100일 성경통독

작년에 진행되었던 전교인 성경필사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진광교회의 전교인이 100일 성경통독을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100일 성경통독에는 교회학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매주 가장 많이 읽은 성도 3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100일 성경통독을 통해서 진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환경미화콘테스트

진광교회는 교회학교는 해마다 봄, 가을로 두 차례 환경미화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교리적인 말과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간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귀한 메시지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꾸민 예배실과 부서 활동공간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자녀들의 헌신과 수고로 각 부서 예배실 및 활동공간이 더욱 아름답게 꾸며졌고, 앞으로의 예배가 기대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의 특징을 잘 살려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을 통해 코로나와 추위로 인해 움츠러든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공간만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